

方、圓、三角、半月、圓의 五方鏡만이 「四方鏡筒外隨方懸之中方鏡筒底安之」라 한 腹藏壇儀式<sup>②</sup>이나 蠶<sup>③</sup>의 말과는 달리 그냥 쌓여 있을 뿐이다. 筒은 金銅製인듯 하며 원통형으로 胴體에 伏八葉장식이 있고 底面에 八葉의 座板이 있다. (全高5cm 上徑六·五mm 下徑二·一cm) 다섯 묶음의 內遺物은 腹藏關係諸冊의 表現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다.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中央 첫만을 例로 들어 보겠다.

묶음의 가장 윗편에 『衣』라 朱書한 황색 능직비단이 있다. 소위 黃絹衣輪이다. 그 아래 韓紙 두겹을 瓶과 같이 오려 水淨瓶이라 먹으로 썼다. 말할 필요도 없이 白色水晶寶瓶에 해당한다. 甌子가 있고 琥珀이 있다. 琥珀은 구멍을 銀板으로 장식한 有孔朱紅色 구슬이다. 四○粒의 乳香, 수백粒의 黃芥, 한오라기의 黃線(비단실), 黃絲이라 쓴 비단쪽(腹藏壇儀式的 黃彩幡), 黃紙로 오린 杆, 白蓋(無文비단), 黃帛(黃色비단) 寶星矩金(?)이라 쓴 木皮(이것은 아마도 知黨 矩舍草임이 틀림없을듯 하다) 三粒의 牛黃, 時花, 白丹, 搔(櫻)樹葉이 차례로 놓여 있다. 報身, 化身字가 보이지 않고 白丹이 있는 것이 古書와 다를뿐 거의 같다.

(3) 書冊

① 永嘉禪師證道歌

① 千人同發願文·길이 七m 넓이 一八cm 一一帳을 接完한 두루마리로 그 끝에 證明師處仁等과 佛像大化主 釋閑, 또는 大木智玄등과 같은 人名과 「嘉靖二十二年 大歲癸卯八月」이라는 刊記를 붙은 글씨로 적었다. 嘉靖二十二年은 中宗 三十八年 즉 一五四三年이 되므로 이佛像은 李朝 前期에 造成되었음을 明白히 알 수 있다.

② 觀世音菩薩禮·儀文·禮文·一帳, 儀文·一五帳 大功德主 孝寧大君이 보이니 表紙가 없어지고 刊記年代도 없다.

③ 眞言集·韓紙六張의 산스크리트語로 된 것

④ 金剛般若波羅密經· 넓이 二二·五cm 各面四二行의 五面, 密直同知 春秋館事 鄭公權의 跋文이 있다.

(4) 珠玉類

좁쌀정도의 珍珠(?) 八粒과 大寶珠明色 유리기슬과 雜珠一粒, 貝珠一粒, 그리고 麻製 노끈에 꿰 유리기슬 一連 및 韓紙노끈에 묶은 구슬 一連 등 많은 구슬이 있다. 이러한 구슬은 腹藏壇儀式이나 其他例에서 보지 못하던 것이다.

× × ×

佛像은 佛敎徒의 正성과 신앙이 內實되어 있는 精神性(佛格)의 具現體라는 점에서 아무도 異論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佛格의 具現은 中世로 내려오면서 부터는 像 자체에서 보다 오히려 佛腹藏에 두려는 경향이 현저해졌다. 佛敎造成過程 中에서도 온갖 正성을 기우리기야 했지만 腹藏安奉에 보다 세심한 배려를 했다. 宗派의 敎理와 時代 또는 願者의 믿음의 깊이에 따라 그 內容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腹藏에 대한 注目은 彫刻史研究의 基本이 될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佛敎史研究에도 크나란 도움이 될 것이다.

註① 「佛敎量度經(新修大藏經 一四一九)

② 「佛腹藏壇表式」(造像經道光四年檢帖寺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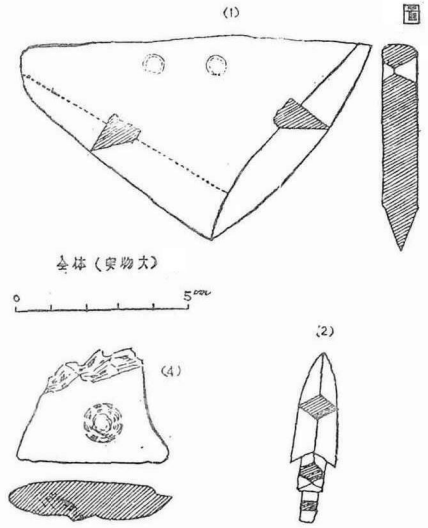
③ 蠶○集(正祖十六年鈔本), 閔泳珪 「長谷寺高麗鐵佛腹藏遺物」(人文科學 一四, 一五合輯)에도 마찬가지로

洪城郡 八卦里 出土 磨製 石器類

崔 夢 龍

一, 지난 一〇月 忠淸南道 洪城郡 八卦里 풀무골에 둘러 現在 그곳 六六五番地에 居住하는 朱鑿魯氏가 院長으로 在職하고 있는 풀무學院(六六四番地) 新築工事及 運動場 整地作業時 出土되어 保管中인 磨製石器類 一群을 實見할 機會를 얻게 되었다.

이들 一群의 遺物은 三角形有孔石刀, 半月形石刀, 石鏃, 石劍, 石斧의 四種類에 걸쳐 合二二點이나 되지만 遺物스런게도 六, 七年前 出土



時 아무런 注意도 기  
울이지 않았기 때문  
에 이들 遺物의 伴  
出關係 及 出土狀況  
을 밝혀낼 수 없었으  
나 傳言에 따르면  
이들 모두가 풀무골  
內에 있던 數基의 支  
石墓下에서 拾得했  
었던 것이 아닌가  
推測되나 確實한 것  
은 아니다.

現在 이들 一群의  
遺物中에는 資料上  
價値있는 것도 있고  
또 洪城郡內 出土,  
遺蹟, 遺物이 報告  
된 例가 적어 ①여기

에 八卦里 풀무골 出土 遺物中 一部를 取扱하여 資料의 追加程度로 簡略  
히 紹介하여 둘까 한다.

遺物이 出土되었다는 풀무골의 位置는 洪城驛(長項線內)에서 東南方  
約 4km 떨어진 現 面事務所가 있는 途中에서 牙山灣으로 흘러가는 金馬  
川의 中流 越便에 標高 約 80m 안되는 이름없는 野山の 兩翼사이에  
자리잡고 있으며 洪城驛에서 大體로 平坦한 道路로 約한 時間동안 오직  
徒步에 依해 到達할 수 있는 곳에 있다.

앞에서 若干言及한 바와 같이 풀무골의 周圍環境은 野山과 金馬川을  
끼고 있어 先史人들의 住居地로서는 好適地였으리라 쉽게 斟酌이 되며  
또 筆者는 풀무學院 뒷산에서 一見 支石墓의 蓋石으로 보이는 支石墓二

基를 發見하였으나 支石이 地下에 묻힌 탓인지 보이지 않고 해서 斷定한  
수 없는 形便이었다.

三、  
三角形有孔石刀 閃綠岩製(圖1)이며 石器의 兩面은 磨研되어 받들거리  
며 大體로 二等邊三角形을 보여준다.

現在 刀部는 三角形有孔石刀의 公式인 것처럼 ② 單刃이면서 하나는 前  
面에 또 다른 한 面은 背面에 表裏相反하게 製作되어 있고 圖一에서 보  
는 바와 같이 刃部가 形成되는 곳에서 두께는 훨씬 얇어지고 있으며 밑  
면에 該當되는 直線가 사이에 二個의 孔을 달고 있다. 이것은 崔淑卿氏  
의 分類에 依하면 C 形式 二斜邊 雙直背에 屬하며 外彎 雙半月形石刀(I  
A 2式)를 使用하면서 얻은 經驗을 살려 改良한 形式 ③이며 우리나라에  
서 發見된 韓國式半月刀인 것이다 ④.

또 이것은 이제까지 出土例가 적으면서도 海岸이 가까운 忠南 洪城郡  
에서 出土되었다는 事實은 三角形石刀의 發生中心地를 湖南地方, 그것  
도 海岸地帶가 된다는 金元龍教授의 主張 ⑤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라 하  
겠다.

有莖式石鏃(圖二)

이것은 江陵市 浦南洞 先史時代 住居址에서 發見된 例 ⑥와 같이 斷面  
菱形의 鏃身部와 화살대에 꽂는 斷面 矩形의 莖部가 層段形成을 이루어  
明瞭히 區別지어지는 有莖鏃이나 前者와는 逆刺가 달린 것이 다른 점이  
라 하겠다.

黃灰色 頁岩製로 全長五·二cm

磨製石劍(圖三)

圖三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은 有光敎一博士에 依하면 無柄一段柄式  
인 BⅡ形에 屬한다고 할 수 있으나 鏃部가 消滅되어 없어진 點으로 보  
아 BⅡ形의 退化形이 아닌가 하며 아마도 이런 例는 初出이 아닌가 한  
다. 그러나 小形인 點으로 보아 나무자루에 裝着하는 石槍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黃灰色 頁岩製로서 全長一四·三cm

磨製石劍把部(圖四)

이것은 現在 劍身과 劍把의 一部를 잃어 버리고 있어 元來 어떤 形態의 것인지 斟酌키 어렵다.

그러나 劍把에 未完全체로 남겨진 穿孔의 痕迹을 보이고 있어 注目을 끈다. 이런 例로 公州博物館에 遺物이 있다. 하나 報告된 바 없어 기에 紹介해 둔다.

(一九六八, 一)

註① 金元龍編『韓國史前遺蹟遺物地名表』P七三 洪城郡條參照

② 金元龍『靈宮郡 月松里의 石器文化』震檀學報二四輯 一九六三, 八 P一三八

③ 崔淑卿『韓國摘穗石刀의 研究』歷史學報第一三輯 一九六〇, 一〇, P三五

④ 金元龍 前掲論文 P一四一

⑤ 金元龍 前掲論文 P一四二

⑥ 李蘭映『江陵市 浦南洞出土 先史時代遺物』歷史學報二四輯 一九六四, 七, P二二五

⑦ 有光教『朝鮮磨製石劍의 研究』(京都大學文學部 考古學叢書第三册 一九六〇) P一三

資 料

堤川長樂里 模博石塔舍利孔

秦 弘 燮

지난 十二月 二十二日부터 進行된 解體作業中 二十六日 第六層 身部 中央에서 花崗石材가 發見되었다. 이 石材는 高三一cm 上面五一cm 乃至 五四cm의 不等邊 方形 自然石이고 그 中央에 一邊 一三·五cm 深四·

五cm 乃至 五·五cm의 方形孔이 있어 舍利孔으로 推定되었으나 內容은 아무것도 없었다. 또 七層 屋蓋部에서는 相輪部의 破片으로 짐작되는 花形이 透刻된 金銅片과 五層 屋蓋部에서 이 塔에 使用된 石材의 一面에 바둑판을 그린 石片이 發見되었다.

新出土 南岳大師碑銘

洪 思 俊

全北 金山寺域에서 最近發見되었다는 大理石製 碑가 있어서 十二月初旬 現物을 보았는데 碑石은 上下兩端으로 되었다. 題篆가 若干 알아 볼 수 있고 碑上一部와 缺端된 部分은 字形을 알아볼 수 없다. 碑는 大略高一·三三m 幅約五五cm 厚一五cm의 小形碑이다. 南岳大師에 對한 金山寺志를 보면 아래와 같다.

「南岳禪師 法名秦宇 號南岳堂 南原人 早年 入出하여 西山大師六世(西山, 鞭羊, 楓潭, 月渚, 靈岩, 南岳)法孫이다. 英祖八年(距今二二八年 壬子九月二十五日 當寺에서 入寂하며 南岳集一卷이 있다)」

그러면 南岳大師는 李朝 肅宗, 景宗, 英祖代의 人物로 보며 碑文撰者가 吳光運으로 亦是 肅宗 英祖代의 人物임을 人名辭書에서 볼 수 있다. 比魯 李朝時代의 碑銘이라 할지라도 金石文으로 地下에서 出土되었으므로 아래에 그 全文을 紹介한다.

(參考) [ ] 標內는 現碑에는 없고 寺志에는 있는 것

南岳大師碑銘

全哭李西堂而歸有僧蒲伏門前乞貌甚哀問之湖南大師在福也 曰某之師秦宇與西堂尚書公好也師之歿西堂將爲之銘今西堂[ ]卒公若不許師之蹟遂滅矣餘願起西堂而不可得聞僧言益悲遂借[ ]道塞悲曰生滅者色 身 也不受生滅者法性也苟能不認瀛爲海[ ]△△△之蹟西之筆奚存奚滅爲之悲者妄也然吾與若既不忍其[ ]△△不謀所以傳其名師號南岳本龍城人也性公無私聰